

중소기업 2명 중 1명 “골목상권 활성화 시급”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55.8%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17.0%)에 대한 응답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소상공인들은 법안 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로 ‘주변 중소기업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48.9%)를 1위로 꼽았다.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 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라는

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조사

유통발전법 개정 ‘찬성’ 55.6%…반대 17%

응답도 24.8%를 차지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과 무관(23.5%) 등이 있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45.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

한 찬성 응답률은 62.7%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이유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63.4%)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등이 있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지만,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 출

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의 응답이 있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유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검토를 선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제한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중소기업부 관점으로 중소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체계적 중소기업정책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30대는 BMW·40대는 벤츠

중고 자동차를 검색하는 서울 거주 남성 중 30대는 BMW, 40대는 벤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SK엔카 직영 중고차몰 SK엔카닷컴이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0대 남성은 BMW를, 40~50대 남성은 벤츠를 가장 많이 조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남성의 차량 조회수를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BMW 3시리즈, 40~50대는 벤츠 E클래스를 많이 찾았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규 SK엔카닷컴 사업총괄본부장은 “수입 중고차에 관심이 많은 서울 남성의 경우 2030 세대는 BMW를, 4050 세대는 벤츠를 많이 찾았다”며 “SK엔카 빅데이터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면 성별·지역별·연령대별 관심 모델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 중고차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엔카닷컴은 연간 약 100

서울 거주 男 중 30대는 3시리즈...40~50대 E클래스

서울 포함 전 지역 20대 남성 관심차는 현대차 아반떼

우 30~50대 남성 모두 현대자동차 ‘그랜저 HG’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

30~50대와 달리 20대 남성이 관심있는 차량 모델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 지역의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찾아본 모델은 현대차 아반떼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30대는 기아자동차 ‘레이’, 40~50대는 현대차 그랜저 HG를 가장 많이 찾았으며 20대는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를 많이 검색했다.

20~50대 여성은 모든 지역에서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대한 관심이

만대의 중고차 차량이 등록되고 온라인과 모바일 방문자 수가 매일 50만명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유통 플랫폼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와 중고차 시장 분석, 소비자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생활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햇결음 보상 서비스’, ‘엔카보증’, ‘클린엔카’ 등의 다양한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스



삼성전자, QLED 8K 98형 국내 판매

초프리미엄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26일 미국·유럽에 이어 한국 시장에 2019년형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8K 98형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QLED 8K 제품군에 98형을 도입함으로써 98형에서 65형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초대형·초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QLED 8K 98형(QN98Q980R)의 출고가는 7700만원이다. QLED 8K는 퀀텀닷 기술을 기반으로 3300만개의 화소가 촘촘하게 배열돼 있다. 입력되는 영상

의 화질에 관계 없이 8K 수준으로 변환해 주는 인공지능 기반 화질 엔진 퀀텀프로세서 8K AI를 채용해 98형과 같은 초대형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화질을 즐길 수 있다.

또 98형의 경우 최대 5000니트(nit) 밝기로 HDR 영상을 구현해 주는 Q HDR5000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주변 환경이나 콘텐츠의 특성에 상관없이 영상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내달 1일부터 QLED 8K 98형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TV를 액치처럼 즐길 수 있는 너프레임(The Frame) 65형을 증정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항공업계, 휴가철 앞두고 ‘임박특가’ 항공권 판촉전

국내 항공업계가 7~8월 여름 휴가철 앞두고, 잇달아 5~6월 비수기 탑승 기간이 포함된 항공권의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보령 항공권은 물량이 처음 풀릴 때인 ‘얼리버드’ 티켓과, 탑승 기간이 임박했을 때 판매되는 ‘뺑치리’ 티켓의 운임이 가장 저렴한 편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오후 5시부터 26일 오후 11시까지 출발 임박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는 ‘주말 드림페어’를 실시한다.

대상 노선은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전, 방콕, 푸켓, 사이판 등 17개 노선의 이코노미석이다. 탑승기간은 5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왕복총액기준 인천~오키나와 노선 18만4800원, 인천~오사카 노선 19만2000원, 인천~홍콩 노선 25만4000원, 인천~사이판 노선 31만4500원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6월5일까지 열흘간 ‘살맛나는 가격, 살맛나는 일본여행!’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기간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

지다. 대상 노선은 ▲인천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가고시마, 미야자키, 이바라키, 오키나와, 삿포로 ▲부산발 오사카, 삿포로 ▲청주발 오사카, 삿포로 등 일본 12개 전 노선 항공권이다.

티웨이항공은 매일 세 번째 월요일부터 7월 간 티웨이 트래블 위크(‘way travel week, ttw)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이벤트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김포·대구·광주·무안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과 인천, 대구, 김포, 부산, 제주, 무안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이벤트를 통해 편도 총액운임 기준 인천~하노이 노선 9만7100원부터, 인천~방콕 11만7450원부터, 인천~나고야 5만18900원부터, 인천~사이판 12만90700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제주항공도 부산~싱가포르 신규 취항을 기념해 오는 5월22일부터 6월4일까지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7월4일부터 10월26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산~싱가포르 편도 항공권을 총액 운임 기준으로 11만6100원부터 판매한다.

ICT 산업 생산액, 작년 497조원 ‘역대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산액이 지난해 497조원으로 5.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2018년 ICT 주요 품목 동향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ICT 생산액 증감률은 2017년(9.4%)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작년에도 플러스를 유지했으나 그 폭은 축소됐다.

ICT 생산액은 작년 전체 산업 생산액(4144조원)에서는 12.0%를 차

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ICT산업 생산액 중 정보통신방송기기가 366조원으로 73.5%의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방송기기 가운데 반도체(141조원) 생산액은 지난해 19.5% 늘었다. 상반기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한 고 가격대 유지, 국내 생산라인 증설 등 때문이다. 또 평판 디스플레이(66조원)와 핸드폰(32조원) 생산액은 각각 5.4%, 1.9%씩 감소했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